“필수의약품도 ‘메이드 인 USA’ ”

▲ 미국 한 제약회사 생산 현장에서 직원이 기계를 조작하고 있다. 사진=paciv.com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필수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린다. 전기차와 반도체, 바이오에 이어 필수의약품까지 ‘메이드 인 USA’ 정책이 영역을 계속 넓히는 모양새다.

지난 27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새로 출범한 ‘공급망 회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공급망 강화 조치 30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가정의 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바이드노믹스’ 일환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와 과학법을 시행한 데 이어 바이오 산업에서 자체 생산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필수의약품을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하도록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전시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만든 DPA는 대통령이 지정한 산업에 대해 제품 생산부터 가격과 수출까지 직접 통제할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를 발동해 백신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 조치에 따라 복지부는 필수의약품 핵심 원료 등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3,500만 달러를 투입한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의 협력 강화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백악관은 “세계 공급망 강화를 위해 동맹·파트너와의 관여를 계속 심화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및 일본, 한국 등을 언급했다.

흑백 분리 수업 … 공립학교들의 실험

▲ 교실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 사진=shutterstock

학업 성취도가 뒤처지는 흑인·라틴계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종 분리 교육 실험이 시도되고 있다.

지난 28일 ‘국민일보’ 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6일 “미국 전역의 교육구는 표준화시험에서 백인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는 흑인·라틴계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 방법을 찾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2021-22 학년도 대학과목선이수제(AP) 시험에서 흑인과 라틴계 응시자는 3점 이상 득점자가 각각 38%, 51%에 그친 반면 백인 응시자는 80%가 3점 이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친화 수업(affinity classes)’ 으로 명명된 인종별 분리 수업이 고안됐다. 미니애폴리스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주요 도시 공립학교에서 흑인·라틴계 학생을 백인 학생과 분리해 반을 편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담당 교사도 유색인종으로 배치된다.

단일 인종 학생으로 학급을 구성하는 건 그동안 미국 공교육에서 사용되지 않던 전략이다. 헌법과 법률의 인종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 평등을 위해 ‘선택과목’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택할 권리를 준다면 위헌 소지가 없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기류가 반전됐다.

인종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각한 지역인 일리노이주 시카고 북부 마을인 에번스턴 교육 당국은 새 방식을 도입한 후 학생들의 출석률과 성적이 점차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 양극화에 피로” … 불출마 선언 의원 러시

▲ 워싱턴 DC 하원의회 의사당 모습. 사진=AP/연합뉴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최근 10년간 정치를 떠나는 의원 수가 최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8일 ‘동아일보’ 에 따르면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지난 26일 “의원들이 기록적인 속도로 의회를 떠나고 있다.” 며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쏟아진 증 오와 상호 비난, 당파적 탄핵 시도와 연방정부 셧다운 위협 등이 ‘정계 은퇴 퍼펙트 스톰(최악의 상황)’ 을 만들어냈다.” 고 지적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질 상·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지난 26일 현재 38명(상원의원 7명, 하원의원 31명)이다. 특히 지난 11월에만 13명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선거가 약 11개월 남은 것을 감안하면 불출마 대열에 합류할 의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출마 선언 의원 상당수는 정치 양극화로 인한 의회 마비를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불출마 러시가 오히려 공화당과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의회 문호를 넓혀 정치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액시오스는 “불출마한 공화당 하원의원들 지역구는 대부분 확고한 공화당 우세 지역인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는 경쟁이 치열하다.” 며 “이는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양당 모두 강경파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고 분석했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업소명(한글) :

(영문):

업종:

Phone:

주소:

City State Zip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Since 1994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